

## 홍준표, “4·10 총선 참패,尹아닌 韓탓”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찍고 나홀로 대권놀이 총 한 번 썩본 일 없는 병사 전쟁터사령관 임명해 놓고 전쟁 이길수 있다고 본 사람 바보라고 작심있는 맹 비판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격노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총선 참패와 관련, 대권놀이에 빠져 22대 총선을 받아 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자신이 한 전 위원장을 거칠게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차기 대권 경쟁자를 밀어내려 하는 것이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선 “망발이다”며 팔짱 끼었다.

홍 시장은 14일 SNS를 통해 “선거는 당이 주도해 치르고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무가 있어서 선거를 도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참패 뒤 그걸 당 책임이 아닌 대

통령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범여권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윤 대통령 책임론을 막아섰다.

홍 시장은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 그 막중한 총선을 치렀고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 나 했다”며 “총 한 번 썩본 일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해 놓고 전쟁에 이길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준 낮은 일부 당원들은 여당 지도부 책임을 묻는 나에게 내부총질 운운 하면서 욕설 문자를 보냈고 선거관여가 금지된 단체장에게 ‘너는 이번 총선에서 뭐했냐고 질책하더라’며 ‘참 무식하고 맹목적인 사람들, 간 큰 사람들이다’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때 우리측 인사수백명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줄줄이 조사받고 자살하고 구속되는 망나니 칼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봤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주었지만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내가 당에 있는 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걸 두고 대선 경쟁자 운운하는 언론이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라며 “생각 좀 하고 싶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미경 기자



### 2024 동해바다를 걷는 울릉해담길 트레일 대회

울릉군을 지난 16일 울릉해담길 일대에서 2024 울릉트레일(해담길 trail)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울릉군이 주최하고 (주)아웃도어스포츠코리아가 주관, 약 130여 명이 참가했다. 남한권 울릉군 속는 ‘울릉도에서 열린 울릉해담길 트레일 대회’를 캐기로, 우리나라 대표 트레일 러너를 선발하고 홍보하고, 앞으로 더 많은 울릉해담길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울릉도 대표적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사진=울릉군제공)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도에는 오명관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 ! 단체장 일정 !



윤경희 청송군수는 15일 오전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과장이 참석하는 간부 회의를 주재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15일 오전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 회의에 참석한다.

### 4월 잔인한 달... 전국 곳곳 동시다발 산불 '초비상'

13일 하루 청송 등 7개 지역에서 9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경계 발령

4월은 역시 잔인한 달이다. 주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대형 산불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까지 부산, 경북 영천, 경기 파주(2건), 충남 공주(2건), 경북 청송, 전북 무주, 강원 횡성 등 7개 지역에서 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청송군 현서면 아산서 산불이 나 59본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차량 14대, 인력 95명을 투입해 오후 2시36분께 불길을 잡았다.

앞서 오전 11시15분께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67에서 발생한 산불은 40본

만에 진화됐다. 당국은 헬기 3대, 차량 28대, 인력 105명을 투입해 오전 11시55분께 완전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 48분께에는 전남 장성군 삼계면의 한 밭에서 불이 났으나 야산으로 번지기 직전 진화를 완료해 산불 발생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후 4시 55분쯤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불 확산이 우려되자 횡성군은 ‘발생지 인근 주민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불은 산림 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조여은 기자

### 경북교육청, 추경 예산 1904억 증액 편성

경북교육재정 건전성 효율성 높이는데 최선

경북교육청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규모는 본예산 5조 4541억 원 대비 1904억 원(3.5%)이 증가한 5조 6445억 원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최고의 학습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향후 원활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정 의무 지출 경비 우선 확보  
세입 예산은 보통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593억 원

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24억 원, 기타 이전수입 24억 원, 자체 수입 337억 원, 전년도이월금 8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이다.

세출 예산은 늘봄 확대, 디지털 교육 등 국정과제와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 법정 의무 지출 경비를 우선 확보했다.

연도 내 집행 여력을 자세히 검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 사업의 집행 여건을 분석, 아·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감액했다.

필요 사업에 재원을 재배분하고, 향후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 전입금을 축소,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맞춤형 복지 지원  
늘봄학교 운영 246억 원,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25억 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55억 원, 졸업앨범비 14억 원, 수학여행과 수련활동비 4억 원,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

축 13억 원 등을 반영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65억 원, 자율형 공립고 10억 원, 책임교육학년 지원 26억 원,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11억 원, IB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영어인증제 운용 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121억 원, 공간혁신 50억 원, 내진 보강 156억 원, 석면 제거 246억 원 등 학교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에 1,069억 원을 투입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활동보호센터 운영 7억 원, 교원 담임수당, 보직 수당, 특수 교육 수당을 비롯해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교원 인건비 172억 원을 증액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3일 확정된다.

김성용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사랑의열매 따뜻한 나눔은도 달성 현장

구석구석 95%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기부금의 95%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전해진 따뜻한 온기, 올해 사랑의열매가 맺은 또 하나의 사랑의열매입니다.

2023년 모금금액 8,305억 원

2023년 지원금액 7,446억 원

지원 대상: 아동 1,719명, 노인 1,010명, 장애인 486명, 저소득층 379명, 기타 1,787명, 총 5,381명

지원 분야: 아동 3,882명, 노인 939명, 장애인 615명, 저소득층 450명, 기타 382명, 총 5,766명

이 금액은 한국연립진흥센터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액은 2023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부금입니다. 지원액 7446억 원으로 전국 5만 개 기관과 함께 43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 100년 후 서울 강남 등 8개 지역 제외...인구소멸

현실적 출산율 높이는 정책 한계... 국가차원 고용률,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한시적 지원 방법보다 2031년 이후도 기금 지속적 활용하는 방안 미리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 노령화와 지방소멸은 심각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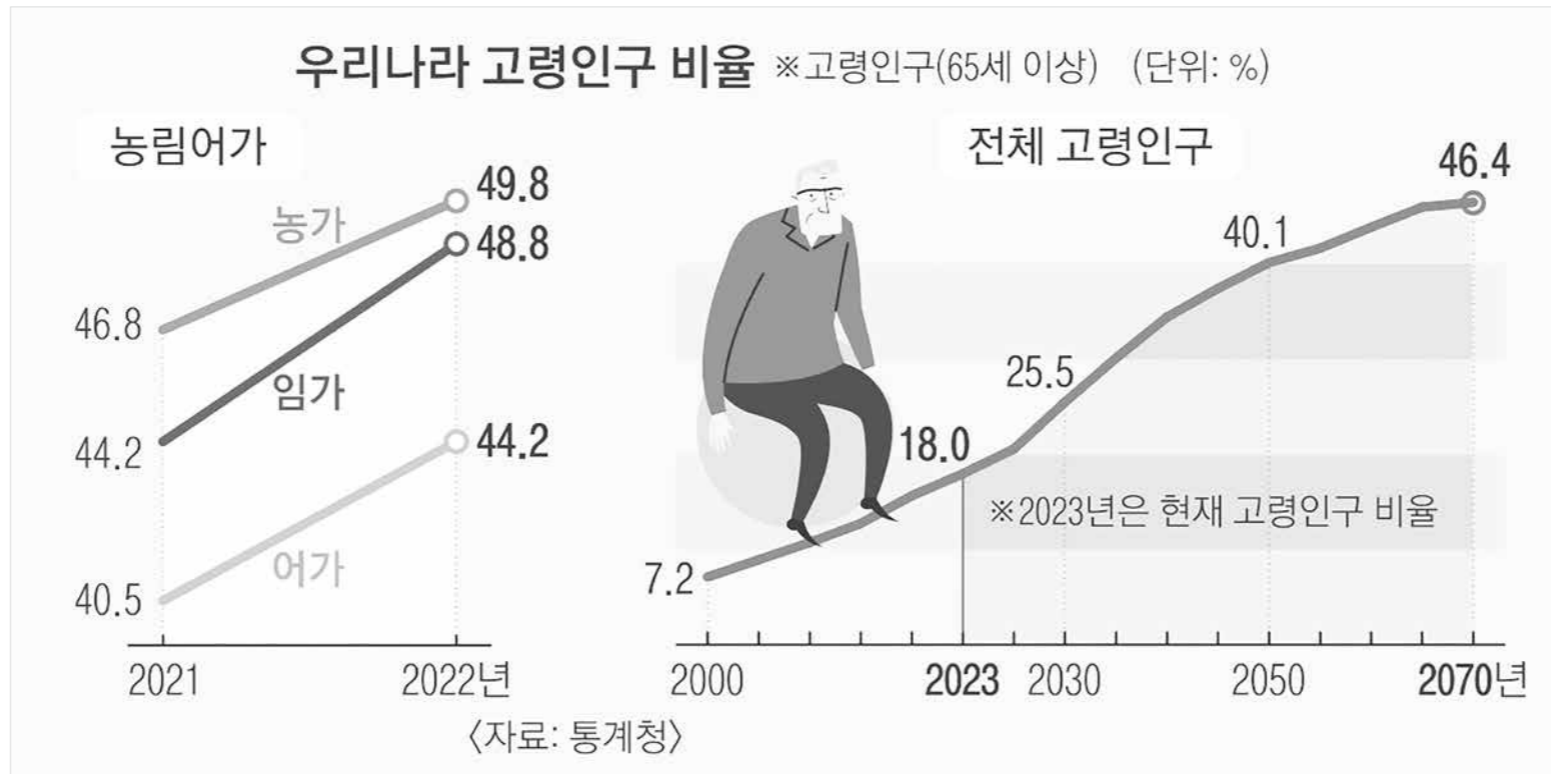
지방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배제할 수 없지만 가속화된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지속 증가하면서 지방 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청년 인구 유출'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 5188만명에서 2050년에는 417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3751만명에서 2050년에는 276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후 8개 지역 제외 인구소멸**  
2022년 기준 한국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다. OECD 평균 1.61명보다 낮다.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27.6%로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 출산 가능한 연령대인 15~49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면 100년후에는 8개 지역 서울의 강남 광진 마포 관악 부산 강서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모든지역이 인구소멸이 지역이 된다. 6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저출산 문제 해소정책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고작 12.5%이다. 최소한 OECD 평균치 수준인 20%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나마 저출산노령화문제와 지방소멸 문제에 따른 정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노력과 국민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인구 줄고 노인이 급증하면 20년 뒤 부양비 부담은 2배나 된다. 내국인 노인인구가 2036년에는 15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노인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 부담'은 2042년 8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 인구추계'를 반영한 내국인 인구추계에서 확인됐다.

**총인구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  
발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한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감소한 뒤 2042년까지 연평균 16만



4000명 줄며 감소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총인구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을 기록한 뒤,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42년까지 연평균 -0.33%로 전망된다.

내국인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0.26%, 이후 2042년까지 -0.44% 수준으로 감소세가 확대되고 외국인인 2.15%, 1.64%를 기록해 증가세가 둔화된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비는 20년새 1.8배 높아진다.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002만명)에서 2042년 94.3%(4677만명)로 감소한다. 외국인은 5.7%(285만명)로 2022년 대비 3.2%(16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포인트(p) 감소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저출산 현상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1.7%에서 8.1%로 한자리 수로 떨어진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6년 1500만명을 넘어선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

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노년부양비 2042년 67.0명**  
저출산 영향으로 2022~2042년 기간 동안 내국인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귀화, 이민자 2세, 외국인의 합으로 산출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한다.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구성비는 2022년 4.3%에서 2042년 8.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 중 귀화 내국인은 2022년 22만명에서 2042년 52만명으로, 이민자 2세 내국인은 2022년 33만명에서 2042년 67만명으로 각각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중 귀화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0.4%에서 2042년 1.0%로, 이민자 2세는 2022년 0.6%에서 2042년 1.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인구 100명이 82명 먹여살리는 시대 20년도 안남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 부양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노인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 부담'은 2042년 8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이후 불과 20년 만에 2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감소한 뒤 2042년까지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 성장률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

평균 0.16% 수준으로 줄어든 이후 감소 속도는 두 배가량 빨라져 2042년까지 연평균 0.33% 줄어든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빠르다. 내국인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0.26% 줄어든 뒤 2042년까지 매년 0.44% 수준으로 감소세가 확대된다.

**고령인구 2036년 1500만명 넘어**  
생산연령인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 감소한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포인트(p) 줄어든다.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저출산 영향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1.7%에서 8.1%로 한자리 수로 떨어진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6년 15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내국인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증가한다. 2035년까지 10년간 2.15% 성장한 이후로는 2042년까지 1.64%를 기록해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인구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외국인 고령인구 규모는 2022년 9만5000명에서 2030년 20만4000명으로 20만명대에 진입한다. 2042년에는 34만4000명까지 늘어났다. 2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전체 외국인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8%에서 2035년 10.3%로 10%를 넘어선다. 외국인 10명 중 1명은 고령층이라는 의미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부양비 부담 증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2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0.78명에 머물러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인구밀도를 보면 ㎥당 프랑스 120명, 영국 280명, 일본 33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0명을 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확대됐다.

**현실 출산율 높이는 정책 한계**  
현재 국내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국내 100대 기업 중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22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인구 위기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4대 분야의 6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활동 인구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분야의 4가지 키워드와 6대 핵심과제다. 6대 과제는 △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이민정책 수립)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 △고령자 고용연장, 복지 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재설계로 구분해 대응방안이다. 하지만 아직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원인을 진단, 지역에 맞는 발전방향과 혁신방안을 찾아 정책구상과 실행에 나서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지역이다. 서울·세종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기초자치단체 7500억 원, 광역자치단체 2500억 원)씩 지원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쏟아내도 지방소멸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생활공간이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된 결과, 아무리 지방에서 출산율이 높아져도 전체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지만 삶의 질이 열악해 결국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고용률 증가 △외국인 노동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노동력의 강화 △노동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 한시적 지원기간을 정해 지원하는 방법보다 2031년 이후에도 기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김성용 기자



배선봉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 회장(산동금속공업(주) 대표)과 한승운 이사(㈜삼한씨원 대표), 허연옥 회원(㈜포머스 대표) 등이 지난 11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산소재 자동차부품 도매 기업인 (주)현대통상(대표 성달표)가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 경북도 피말린 저출산과 전쟁 사활 건 한판승부

위기상황 극복...총 7933억원 규모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저출생 정책 추진 국민 정책 공모 저출생과의 전쟁 자금 14억 돌파

경북도가 저출산과 전쟁에 사활 건 한판승부를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편'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각 부서별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안감함을 쏟고있다. 일선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자칫 지방이 없어진다는 위기와 공포가 엄습해오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소멸위험 지역도 날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 경북도, 저출생 극복 추경 예산안 편성

경북도는 저출생을 국가소멸이 걸린 안보문제로 규정했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 793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추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전 직원과의 끝장 토론,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발굴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사업화하기 위하여 서둘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킨 경북의 저력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때문에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재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추경예산을 보면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 과제에 727억원(도비 541억원)을 투자한다.

도비 541억원은 법정·의무적 경비, 중앙지원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비(1709억원)의 31.7%에 달하는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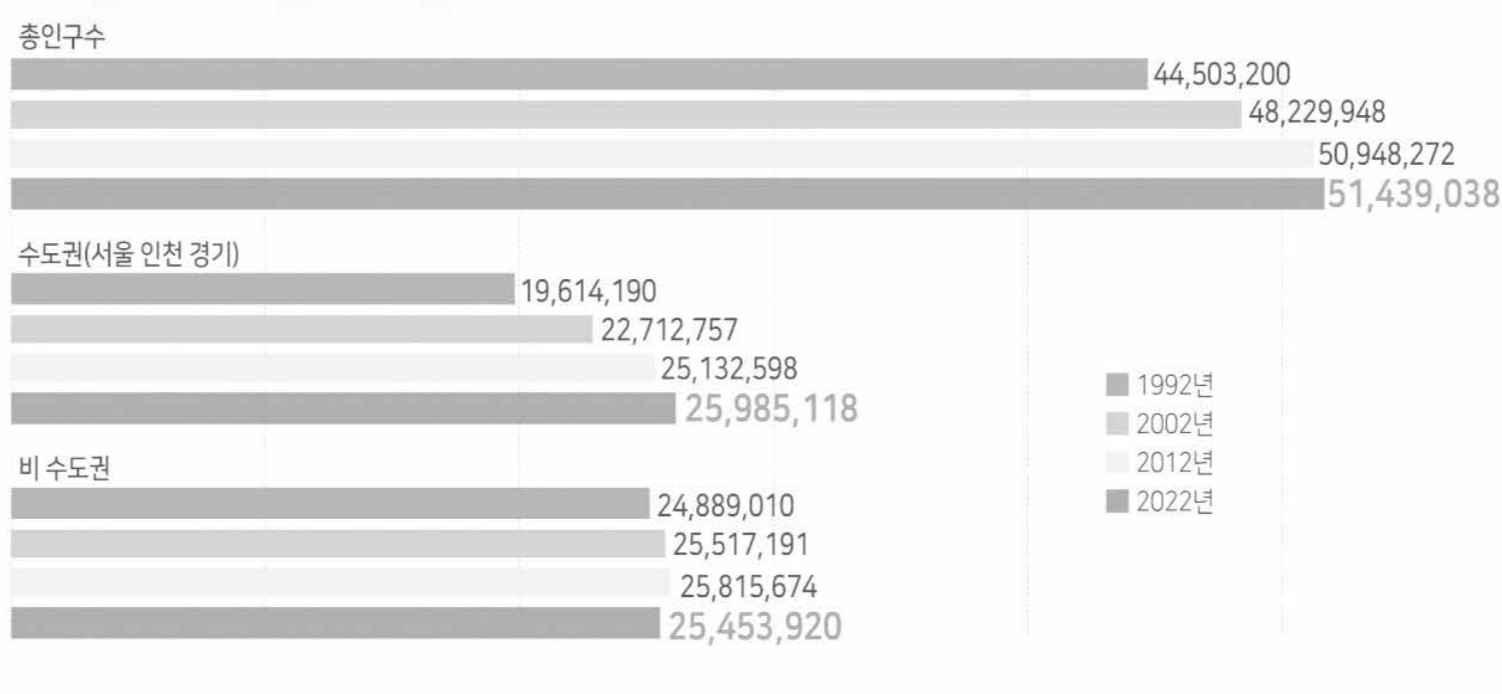
세부사업별 추경예산은 완전돌봄 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 60억원,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52억2000만원, 아이돌봄봉사자 처우개선에 8억1000만원이다.

안심주거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201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월세 지원 84억원이다.

일·생활균형에는 육아기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7억원, K공공기관형 돌봄 시범모델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추이 (단위: 명)



구축 7억원 등, 양성평등은 경북형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 운영 지원 3억원, 산모 미역국 밀키트 지원 2.8억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2억4000만원이다.

기타 지원에는 농번기 돌봄 지원 4억4000만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1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업체 이차보전 40억원, 중소기업안전자금 이차보전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민생활 지원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사업 147억원, 지방도사업 317억9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84억3000만원, 경북형 재난 대응체계(K-citizen first) 프로젝트 20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시군조정교부금 1557억원, 교육청전출금 1104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도 추가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일 최종 확정된다.

### ■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경북도가 현장이 체감하는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민 정책공모에 들어간다.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해 온 저출생 정책들을 분석했다. 이 결과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이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추진된 사실을 알아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결국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모를 추진한다.

'아이기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5~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공모 분야는 크게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와 △결혼·출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다.

우선 △저출생 아이디어 분야는 결혼, 출산, 돌봄, 주거,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등의 과정에서 원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다.

△제도 개선 분야는 결혼과 출산,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세제, 주택, 금융 등의 분야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불편 사항 등을 제안받는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모문(이메일)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참신성·실현 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우수제안 60여 건은 각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참여자 전체 추첨으로 200여 명에게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21~22일, 경북도 누리집에서 발표, 개별 통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표는 지난 11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경북 PRIDE기업 CEO협회는 경북 PRIDE기업의 글로벌 명품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PRIDE 기업을 회원사로 해 2011년에 설립했다.

경북 PRIDE기업은 경북의 우수 중소기업으로 2007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93개사가 있다.

경북 PRIDE기업 CEO협회는 코로나 19, 후유해 복구 등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금을 기부해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산소재 자동차부품 도매 기업인 (주)현대통상(대표 성달표)가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주)현대통상은 2003년 설립돼 자동차부품 물류 유통산업 전문업체로 입지를 구축했으며, 나눔 경영과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1억원 을 기부했다.

이 기부는 이철우 지사가 새롭게 구성된 상공회의소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화답해 이뤄졌다.

이날 경북문화관광공사는 3000만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직원의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상향(20만원→50만원)하고,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다자녀(2명 이상) 입장료 할인 확대(20%→50%), 카니발 캠프 패밀리 데이(가족여행 비용 지원) 등 저출생 극복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이날 성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KBI건설 대표이사인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북회장은 지난 5일 5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3일에는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 삼보모터스(대표 이재하)가 2000만원을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이정철 회장)가 2000만원과 장학금 1000만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들이 1170만원을 전달했다.

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은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 이상 성금 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13억7800만원이 모였다.

14일 현재 14억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사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계에서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성금이 합입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계에서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성금이 합입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계에서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성금이 합입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계에서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성금이 합입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동구청, 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

동구청은 지난 13일, 팔공산 국립공원 가바위 등산로 일대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동구청, 동부소방서·의용소

방대, 팔공산 국립공원사무소, (사)한국산림보호협회의 직원 및 회원 총 14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팔공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에서 취사 금지 등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과 재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숲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달성의 큰 잔치 “비슬산 참꽃문화제”... 화창한 날씨도 한몫

산신제로 축제 성공 기원  
2024인분 비빔밥퍼포먼스 등

제28회 비슬산 참꽃문화제가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렸다. 참꽃문화제는 달성군·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해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이다. 달성군 비슬산정상에는 약 30만평의 참꽃군락지가 펼쳐져 있다. 국내 최대의 참꽃 군락지로 알려져 축제기간 동안 매년 10만여명이 장관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정상에서 바라본 분홍빛 참꽃은 장관을 이룬다. ‘우리는 참, 꽃이 될거야’를 주제로 진행된 축제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달성군민의 화합과 발전, 축제 성공 등을 기원했다. 점심 시간에는 참꽃과 달성군에서 재배한 음식 재료 등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2024인분의 비빔밥을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오후엔 가수 백지영 등이 출연하는 음악 공연도 펼쳐졌다. 축제 이틀째인 14일은 가수 예녹을 비롯해 농악과 오카리나, 기타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 공연을 볼 수 있다. 비슬산인근 호텔 아델리아 일대에서 ‘참꽃버스



킹 공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펼쳐졌다. 해금과 바이올린, 아코디언, 통기타 연주, 마술 공연 등이 진행됐다. 참꽃군락지 진입로 인근 주행사장에선 푸드트럭과 함께 참꽃 방향제·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참꽃 체험존’이, 행사

장 인근 등산로에선 비슬참꽃빵과 커피, 지역 농산물 등을 홍보하는 ‘달성홍보존’이 각각 운영돼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총선에서 3선을 성공한 추경호 국회의원은 피곤함도 잊고 “올해는 날씨가 워낙 좋아 이번 축제 날씨가 선택은 정말 잘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상이다”며 “오늘하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어 “달성군을 위한 참꽃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군민 사랑의지를 밝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날씨가 좋아 참꽃이 만개하는 시점에서 축제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벚꽃없는 벚꽃축제 때문에 날씨 걱정을 많이했다고 고백해 군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이어 “개군 50년 이래 대구미래를 이끌 사업을 많이 유치했다”며 “이런 기운으로 군민이 한 마음 한뜻으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대구농수축산물도매시장 하빈 이전 본격화

이전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  
4099억 들여 2031년 준공 예정

대구시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국비 904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농수축산물도매시장 하빈면 이전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대구농수축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을 제출해 사업 필요성 및 대응 노력, 도매시장 성장 여건, 지자체 의지 및 계획 적정성, 시설현대화 연계 운영개선 등 4개 항목 15개 세부평가 지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대구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 이후 지속적 성장으로 전국 3위 규모의 거점도매시장

이 됐지만, 설계물량 2배 초과로 혼잡도 증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비효율적 동선 배치 등으로 대폭적인 시설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4차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달성군 하빈면 이전신축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시설현대화 총사업비는 4099억 원으로 국비 904억 원, 시비 2,645억 원, 달성군 550억 원이다. 부지 27만8026㎡, 건축 연면적 15만5654㎡ 규모이다. 주요 시설로는 공동집배송장, 저온경매장, 저온저장고와 선별, 소분, 패키징, 가공 등을 위한 상품화시설을 신설해 현재 도매시장과는 차별화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이전지 도매시장은 시설 및 공간 확대를 통해 기존 처리 물량 한계를 극복하고, 최적 동선 설계, IT 기반 물류, 공동물류 시스템 등 획

기적 물류개선, 첨단 유통 시스템 구축, 이용자 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을 목표로 계획된 전자송품장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기반방향인 디지털 기술 활용 농산물 거래 방식 혁신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온라인 물류센터를 설치해 온라인 거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으로 대구농수축산물도매시장의 하빈 이전 및 한강 이남 최고 거점 도매시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새로 출범한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장운영 모델을 만들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중구청, 중기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

향촌동 수제화골목 활성화 주도  
북성로 일원 활력 모색

중구청은 향촌동 수제화골목 일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및 상인, 주민이 협력해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대상지로 전국에서 13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구는 오는 12월까지 국비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향촌동 수제화골목을 포함한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에 투입한다. 사업 주관기관인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 사회

적협동조합’은 지역상권인 수제화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인·주민 네트워크 구축, △수제화산업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수제화센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쇠퇴하고 있는 수제화산업을 리모델링해 수제화골목과 북성로 일원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는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 시 우대 지원되며, 향후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구성원들이 수제화산업 현대화를 위한 콘텐츠를 발굴해 수제화골목이 활기를 찾고 청년 창업자가 유입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며 “수제화 골목과 북성로 전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동구청, 드림스타트 가족영화 관람

동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13일, 율하 롯데시네마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121명을 대상으로 ‘쿵푸팬더4’ 가족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네마 천국’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문화적 체험 활동의 장을 넓혀 주는 동시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영화 관람 프로그램에 참석한 가족들은 “여러 사정으로 가족이 함께 영화관에 올 기회가 부족했는데 드림스타트의 ‘시네마천국’ 프로그램 통해 인기 영화를 보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온 가족이 함께 영화관람을 통해 친밀감을 향상 시키고 유대감



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아동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수성구,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공모 선정

수성구청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입사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수성구는 기업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신입직원에게 온보딩 교육을 지원하는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을 제안해 대구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됐다. 수성구청년센터와 지역 기업 20개사가 사업에 참여하며 관리역량 향상, 리더십 교육, 신입사원 마인드셋, 자기개발 방법, 팀워크 중요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수성구 들안예술마을 청년공방 네트워크와 연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올 한해 청년 영상공텐

츠 제작, 청년축제, 들안마을 예술공방 등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감도 높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미래 디지털 산업의 혁신거점이자 비수도권 최대 정보통신기술(CT)/소프트웨어(SW)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기업-인재 네트워크를 확대해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등 미래세대 지원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미경 기자

## 달성문화재단, 달성군 전국 사진공모전 ‘달성내켓’ 개최

달성의 일상적 생활상 가점부여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접수

(재)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13회 달성군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13회를 맞이하는 달성군 전국 사진공모전은 ‘달성내켓 : 내가 찍는 나만의 달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달성군의 모습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내고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자 한다. 공모분야는 일반사진 부문과 스마트폰 사진 부문이 있다. 자격 제한이 없어 사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크게 △관광자원 및 자연환경 △축제 및 문화행사 △전통문화 △생활상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야경, 액티비티 등 달성군을 소재로 촬영한 작품이면 출품 가능하다. 이번 사진공모전에는 지난번까지 없었던 심사기준이 추가됐다. 좀 더 다양한 사진을 달성군 홍보에 활용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의 의미를 살리고 자일상생활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예를 들어 △학교 축제를 즐기는 활기찬 학생의 모습 △전통시장에서 즐겁게 일하는 상인의 정겨운 모습 △공원을 뛰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 등 달성군의 일상적 생활상이 잘 드러난 인물 및 활동사진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부문별 1인 최대 3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들 중에서 총 35점(일반사진 20점, 스마트폰 사진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11월 중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시상식과 연말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달성군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병구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달성군의 멋진 자연경관과 관광명소 외에도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모습들과 숨겨진 내안의 스토리를 담은 사진을 통해 달성군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rt.or.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재)달성문화재단(☎053-668-4245)으로 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경주시, 2024년 사회조사 조사요원 교육 실시

경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사요원 23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북도·경주시 사회조사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

될 '2024년 경상북도 및 경주시 사회조사'에 앞서 진행됐다. 교육은 조사표 작성 방법, 조사구 방문예절 및 불응가구의 대처요령,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사회조사는 시정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정부승인 통계조사다.

조사원 25명은 표본가구로 선정된 1428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조사도 병행한다.

# 경주, 신재생에너지에 19억 원 투입...2050 탄소중립 실현

## 주택·건물 137개소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원



경주시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집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19억 원 예산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14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3억 원) △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1억 원) △기업에너지 고효율 설비개선 지원사업(1억 원)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복지화관·경로당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지원 사업(106곳)은 3kW 용량 태양광 설치 시 가구당 총 설치비용은 596만원 정도다.

자부담금은 178만 원(30%) 정도다. 월 400kW 사용 가구 기준으로 년 간 60만 원 정도 전기요금 절감된다.

건물지원 사업(31곳)은 지역 복지화관, 경로당, 향토뿌리 중소기업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당 3kW 용량 태양광 설치기준 총 설치비는 600만원 정도이며, 중소기업에 한해 20% 자부담이 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력 소비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어 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한번에 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내남면, 양남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지역 저소득층 400가구와 갑포 복지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오는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복지시설은 LED조명 교체뿐만 아니라 18곳에 대해 개소 당 최대 1600만원 지원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또 노인복지시설에 6곳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실내공기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체 2곳을 선정해 기업에너지 고효율 설비개선 지원 사업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주택·건물 지원 사업 198곳,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323곳을 지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 절감과 전기에너지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주, 맞춤형 정착 지원으로 귀농·귀촌 최적지 만든다

### 이사비 등 최대 700만원 지원 농기계 및 영농자재 70%지원 등

경주시가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에 앞장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현장 실용교육 △이사비 및 주택 수리비 등 재정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환영행사 등 교육 초기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우수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인 선도농가가 이주한 귀농인의 초기 영농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자 귀농인 농장을 방문해 영농기술과 시설관리법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관심 있는 분야 작목 재배기술 습

득, 정착과정 상담 등 현장실습 교육에 5개월 간 참여한 귀농 연수생에게는 최대 월 80만원, 선도농가에게는 최대 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주농업대학에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귀농·귀촌 과정뿐만 아니라 치유농업, 사과 과정을 주 1회(3~4시간) 운영한다.

재정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귀농인에게 최대 100만원, 귀촌인에게 최대 20만원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예비 정착지에 대한 일정기간 자료 수집·탐색을 위해 월 15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간 임시거주지 임차비를 제공한다.

지방, 육실 등의 보수비용인 주택수리비 최대 600만원과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등 영농 정착비 최대 1400만원(70%) 지원도 더해진다.

가구당 3억원 한도 내 농업창업 자금과 7500

만원 내 주택구입·신축은 물론 증·개축 비용에 따른 용자도 이뤄진다.

귀농 초기 정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 이내 소형농기계 70%, 영농자재 70% 구입비를 각각 지원한다.

귀농·귀촌 가구주가 지역민들과 식사, 다과제 공 등의 화합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135만원 한도 내 환영행사비용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영농 환경,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주가 최근 귀농·귀촌 최적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민의 전입을 유도하는 유치지원 분야를 비롯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 분야에도 집중해 관련 양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정희근 경주지역자활센터장, 경북지역자활센터협회장 취임

###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11일 임직원 워크숍과 함께 진행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지난 11일 경북지역자활센터 협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장, 황진석 경북광역자활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180명이 참석했다.

먼저 임직원의 교육 등 자활역량 강화와 상호 교류를 통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정희근 경주지역자활센터장이 제12대 협회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을 가졌다.

협회장이 취임식 일정에 맞춰 11일부터 12일까지 임직원 워크숍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경북지역자활센터협회는 2009년 설립돼 '소통과 연대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저소득층의 후견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희근 신임 경북지역자활센터협회장은 "경북 19개 지역자활센터와 연대해 참여 주민이 자활역량을 키워나가는 일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취약 계층들의 자립을 위해 애쓰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지속적으로 참여 주민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 '선덕여왕 납시오'... 10월까지 매주 토·일 행차 재현

###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12시, 오후 2시 각 진행

경주동부사적지 일원에서 오는 10월까지 '선덕여왕 점성대에 행차하다' 이벤트가 펼쳐진다.

신라문화콘텐츠개발원이 주최·주관하고 경북도와 경주시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 선덕여왕의 업적을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점성대와 동부사적지 일원을 무대로 매주 토·

일요일 12시(정오),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혹서기 7·8월은 제외된다.

행사는 여왕이 신라 금제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가마인 보연을 타고 행차하는 재현 행사로 행렬이 끝나면 점성대를 배경으로 선덕여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행차코스는 경주향교에서 출발해 계림, 점성대를 지나 동궁과 월지 입구, 점성대, 대릉원 입구, 점성대를 거쳐 계림, 경주향교에서 종료된다.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b>지원대상</b>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b>대상농지</b>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b>연금수령액</b>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b>농지가격</b>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b>가입혜택</b>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나부터 청령하GO! 우리 함께 청령하GO! 모두 청령하GO!"

**ki**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KRCB | 서울 | 영등포구 | (연세대학교입구) | 제 2-2021-0041802

###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 울릉 오징어축제 8월 5일 막을라

울릉군 대표 여름 축제인 '제22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8월 5-7일까지 3일간 저동항 일대에서 열린다.

울릉군 축제위원회는 지난 11일 울릉도 오징어축제 개최시기와 장소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오징어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울릉도 오징어축제는 2024-2025년 경북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군은 올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알차게 준비한다.

김수한 축제위원장은 "지난해 개선 사항을 반영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와 협력,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 청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총력

청도군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공개모집으로 모범사업 3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2일 진행된 안전교육에는 30인의 피해방지단원들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명의로 인재육성 장학금 150만 원을 기탁하는 전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 영양군 게이트볼 대회 개최

영양군은 지난 12일 영양군 입암면 선바위 관광지에서 제5회 영양군 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영양군 게이트볼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여 입암면 선바위 잔디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영양군 6개 읍·면 게이트볼 동호인 130여 명이 참가하여 경기를 펼쳤다.



#### 영덕,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덕군은 산림 생태계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산림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산지 불법 훼손, 임산물 무단 채취,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을 위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 가능한 보존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보부상들의 이야기가 지역문화축제로~

울진군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 울진의 전통과 역사 계승 발전 다양한 방안 찾는데 행정 집중

울진군은 오는 20일 북면 삼당권역 십이령 마을에서 보부상들의 이야기를 이화기로 엮은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를 연다.

십이령 마을은 옛날 울진의 해산물과 봉화 등 내

륙지방의 특산물을 물물교환하던 보부상들의 길목이다.

지금은 금강송 숲길을 찾는 탐방객들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전통유산을 계승 발전, 2011년 주민들의 자제적인 기획과 노력으로 출발,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주민참여형 축제이다.

축제는 바지개군 놀이와 주도 선발대회 등 보부

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줄거리로 꾸며진다.

십이령 부녀회에서 축제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장 인근에는 자연 용출되는 덕구 보양온천과 울진 금강송 숲길, 그리고 구수곡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자원이 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가족 단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고 있다.

강성국 십이령마을 운영위원장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유산을 축제로 승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 즐겨 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 가는 축제라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지역축제 발전 및 울진군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울진군, 매화 기미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울진군이 매화면에 있는 만세공원에서 제3회 매화 기미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가졌다. 매화항일독립정신선양회(회장 남중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1919년 4월 11일 울진 독립운동사의 촉매가 된 매화 항일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손병복 군수, 임승필 군의회 의장, 유족대표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울진군 제공)

## 청도군, 만족하는 사회복지 현장 조성 노력

### 장기요양요원 472명 대상 월 3만원씩 분기별 지급

청도군은 올해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내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로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 마련, 관내 56곳 기관의 장기요양요원 472명에게 지원된다.

어르신 인구 증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더욱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강도가 높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군은 장기요양요원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노인요양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운전원 등이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종사,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분기별로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내 기초지자체 중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 사례는 청도군이 5번째이다. 그간 노인

복지시설 경북도 종사자수당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들과 시설(기관) 종사자도 이번엔 포함됐다.

장기요양요원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한 처우개선과 관내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요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여 지역 어르신 등을 위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로 귀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여은 기자

### 청송,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매월 맞춤형이동진료 지속운영

청송보건의료원은 2021년부터 안동의료원과 연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도내 산부인과 없는 분만취약지역인 5개 군(영양, 봉화, 성주, 고령, 청송)을 순회 방문한다.

지역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마지막주 월요일마다 월 1회로 진행 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임산부를 위한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초음파 검사를 진행, 임신부가 아니더라도 부인과 진료를 원하는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에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해야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임신부 및 가·배가임 여성이 농촌지역에 살아도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이동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해졌지만,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공중보건인력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픈 몸뿐만 아니라 외로운 마음까지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돼 달라"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 "울릉에 온 공중보건의 환영합니다"

### 울릉군, 2024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공중보건의사 15명이 울릉군에 신규 배치, 울릉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진료에 임한다.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의는 전문의 3명(마취통증의학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1명), 인턴의 8명, 한의과 3명, 치과1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감소했다. 공중보건의들은 15일부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각각 배치, 업무를 수행한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의사 15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했다.

교육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김영현 원장 주재로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역할과 기본의무, 복무규정, 청렴과 친절 교육, 당면 현안 사업 등을 교육했다.

김영현 울릉보건의료원장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통해 "취약한 의료 환경에서 보건의료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울릉도의 의료여건이 육지에 비해 다소 열악

## 내가 관심 있는 청송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 청송군,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 청소년활동 공간부족 문제점...

청송군이 '2024 청송군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 및 역량강화 공동연수를 가졌다.

군은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 군정 제안과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4~22일까지 공개 모집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6명,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15명 총 31명을 선발했다.

지난 11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3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역량강화 공동연수를 진행, 청소년 참여활동 및 참여기구 제도에 대한 교육과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지역 사회 청소년의 관심 문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내가 관심 있는 청송군의 문제는 무엇인가요?'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논의를 거쳐 '청소년 활동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도출했다.

올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 영양군, 싱글벙글기억교실 인기 짱

### 경증 치매환자 8명 대상 3~5월까지 주2일 총24회



영양군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 8명을 대상으로 3~5월까지 주2일 총 24회기 과정으로 치매환자쉼터싱글벙글기억교실을 운영 중이다.

치매환자쉼터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전문적인 인지 자극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 치매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부담부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인지선별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전문 강사 초빙 운동, 미술, 공예활동 △로봇(피오)을 활용한 인지훈련 △컬러링북, 학습지 차매교구 등 다양한 인지활동이 제공된다. 또한 원거리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자 송영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영양치매안심센터는 현재 651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 중이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정보 및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쉼터 외에도 경로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등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이니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영양군치매안심센터(680-5126)로 문의바란다"고 말했다. 권운동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천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15일 오전 다산면 노곡리(710-1)에서 열리는 도란도란어울림센터 준공식에 참석한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박현국 봉화군수도 동참

박현국 봉화군수가 지난 1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주석수 연세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박현국 봉화군수는 자매도시간 협력 증진 및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부천시에 기부하고 다음 주자로 조용익 부천시장을 지목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이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전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좋은 뜻을 가진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우리 고향도 살리고 자매도시 간 상생과 협력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심사, 사업장 방문

영주시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제)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원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고 관내 주요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한다.

심재연 의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성기 기자

# 고령군 '2024 왕의 길, 현의 노래' 투어 운영

1박 2일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매회 35명 모집, 총 500여명 체류

고령군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024 왕의 길, 현의 노래(王道絃歌)' 투어 프로그램을 6월 12일까지 13회에 걸쳐 진행한다.

'왕의 길, 현의 노래'는 경북도에서 쉽고 있고, 나만의 명소를 찾아가는 원포인트 여행 등 'ROUTE.(나만의 경험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테마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된 '사군별 대표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이다.

6년차의 대표관광상품은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령군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 웰니스, 힐링, 캠핑 관광자원을 결합해 1박 2일간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기획했다.

서울, 수도권 지역 홍보를 통한 모객으로 매회 35명 이상 모집하여 총 500여 명의 관광객이 고령을 다녀갈 예정이다.

주요 코스는 1일차에 가야마을에 대해 배우고 연주해보는 '현의 노래' 체험,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박물관, 지산동고분군 '왕의 길' 트레킹, 카페포카오 즉석체험 등을 진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인 가야마을에서 한옥스테이로 2일차로 넘어간다.

## 영주시, 'Y-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2030 젊은 공직자 5개팀 구성  
혁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나서

영주시가 지난 12일 시청 강당에서 정책 발굴 혁신동아리 'Y-주니어보드'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Y-주니어보드'란 기관의 중요 정책결정에 앞서 젊은 실무자들이 건의나 보완사항을 제안하고 토의하는 제도를 뜻하는 주니어보드에 영주시의 약자 와이(Y)를 붙인 엠지(MZ) 세대 공직자 중심의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된 'Y-주니어보드'는 올해 20~30대, 근무 7년 이내의 공직자 20명, 5개



2일차는 가야마을에서 정밀재 김종직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통 옷 만들기 체험을 하고 대가야수목원과 대가야시장에서 화창하고 생동감 있는 고령을 만나보는 코스다. 특히 가야마을을, 가야마을에서의 시골 밥상차

림과 고령의 대표 맛집에서의 미식투어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사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을 통해 세계유산도시 고령의 먹거

리, 체험, 숙박까지 체류형관광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일상을 체험하는 생활밀착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배병백 기자

## 성주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참여 작황 점검 수급안정화 당부

스마트 생산·유통시설 등 둘러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성주군을 방문했다.

성주군은 전국 참외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참외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현장의 생산한 참외 작황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생육관리 및 출하 확대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송 장관은 참외 생산 농가를 방문해 참외 작황 현황을 점검하고 스마트 생산시설 등 성주만의 고품질 참외재배 기술력에 대해 칭찬했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에 방문해 (사)한국참외생산자협회 강도수 회장 등과 함께 AI선별기, 자동적재로봇 등 스마트 유통시설에 대한 시찰 및 출하 동향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 정희용 국회의원,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

국장을 비롯해 이병환 군수, 김성우 의장,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등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 초 이상기후로 참외 생산이 불안정하였으나 정부 및 지자체·유관기관·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철을 맞이한 지금은, 수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시설원에 농산물의 중심에 있는 성주참외 현장이 안정화돼야 농업인, 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다면서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답했다.

한편 농식품부·성주군·참외자조회는 지난 1월부터 참외 작황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일조량 감소에 따른 대응기술 농가지도, 투광성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피복제 세척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도재훈 기자

## 봉화군의의회, 결산검사 위원 4명 위촉

예산 집행 건전성·효율성 살펴

봉화군의의회는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봉화군의의회 금동윤 의원과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모두 4명으로 위촉됐다.

금동윤 대표위원은 "예산이 집행된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봉화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자세로 결산검사에 임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봉화군의 세입 세출 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금고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

전성기 기자

## 의성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제안 공모

의성군은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안계 행복플랫폼 및 안계청년예술촌거리 활성화를 주제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제안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심 있는 의성군민 또는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적합한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안계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사업접수 기간 중 사전설명회를 4월 15(월)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홍보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 봉화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

봉화군은 지난 12일 봉화군 농업협회의소에서 라오스 계절근로자 52명의 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3년 8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올해 처음으로 라오스 근로자들이 입국했으며, 오는 5월까지 66명이 입국한다. 특히 5월에 입국하는 근로자들 중 10명은 봉화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전성기 기자

## 최기문 영천시장, 청년 창업가 소통 가져

"맞춤형 정책으로 성장 도울 것"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9일 관내 청년 CEO가 운영하는 사업장 2곳을 방문해 청년창업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먼저 방문한 '리주니(대표 이수희)'는 카페와 뜨개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맛있는 베이커리 디저트와 아기자기한 굿즈 그리고 뜨개질 원데이 클래스로 주변 맘카페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이다.

이 대표는 "맛과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뜨개공방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달콤한 디저트로 손님들에게 행복을 주고, 본인이 만든 도안으로 수강생들이 멋진 작품

을 만들어냈을 때 행복을 느낀다며 엄마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두 번째 '티엘(대표 김진우)'은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이다. 2020년 도시청년시골과거전체 지원사업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한 사업장이다.

반려동물용 알레르기 케어 맞춤형 사료를 직접 연구 개발해 수출은 물론 현재 국내 800여 개의 동물병원에 입점하는 등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지원사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올해 기대 매출액은 10억원 달성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기대시장인 만큼 열심히 연구하고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차세대 주역인 청년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며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것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영천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 2024 대구광역시일보

##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